

고마이누

고마이누상은 한 쌍을 이루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. 이들은 악귀를 내쫓고 절이나 신사와 같은 신성한 장소를 수호합니다. 이곳에 있는 두 조각상은 일반적인 고마이누와는 달리 중국 송나라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송나라풍 사자상입니다.

한 쌍의 송나라풍 사자는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매우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. 또 한쪽은 아이를 안고 있는 반면, 다른 한쪽은 공을 안고 있어 중국풍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

입모양이 다른 것에 대한 의미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,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각상은 산스크리트어의 첫 글자인 ‘아’를 소리내고 있으며, 입을 닫고 있는 조각상은 ‘흠’을 소리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둘을 합쳐 ‘아흠’이라고 하는데, 이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신성한 불교의 음절입니다.

높이는 입을 벌린 조각상이 60.6cm 이며 다른 한쪽은 62.1cm 입니다. 가마쿠라 시대(1185-1333)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